

# 국제 자연보존 연맹의 정의이해를 통한 우리 국립공원의 근본적 문제에 관한 고찰

윤 영 일

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 Problems and Issues of Korea's National Par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UCN's Definitions

Youn, Young-Il

Department of Forestry, Kong-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Nature preservation has been a main stream trend as the purpose and meaning of world's national park management since the definition of a national park was first adopted at the IUCN meeting in New Delhi in 1969. However, Korea's national parks have been managed in a direction opposed to that of the world trend.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meaning defines a national park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for nature conservation, where an ecosystem must be preserved in as much of a natural state as possible. It also defines a national park is a place where only the minimum amount of human intervention is allowed. The role of tourism, which was initially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national parks, has been reduced to the extent where tourism in national parks is allowed only to the point where conflicts arising from local socio-economic interests tied up to the tourism can be dealt with. From this perspective, Korea's national parks are being challenged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and to develop management based on ethical grounds for future generations.

## I. 서론

국립공원이란 미국에서 탄생한 뒤 전 세계에 퍼져나간 서구문화의 산물로 이 개념을 받아들인 우리는 불행하게도 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했다(Youn, 1993). 현재 국립공원은 자연보호, 생물다양성, 휴양, 관광자원, 지역사회와의 갈등, 국토개발 등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용과 보전(Utilization and Conservation)”이라는 명제 아래 이용이 강조되므로 지속적인 자연 파괴를 초래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으나 논자는 그 원인을 국립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족에 의한 정책결정으로부터 오는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려된다. 더구나 오늘날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를 후손에게 본래 모습대로 물려주려는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자연보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공원정책의 최종결정에 기본지침이 되어야 할 국립공원의 정의에 대한 올바른 재조명과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이것은 국립공원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작업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국제기준(IUCN 분류기준, Category II, National park and protected area)에 적합한 국립공원이 없는 이유와 국제적 평가기준이 모두 이 정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논자는 UNESCO의 산하기관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지역(National park and protected area)의 정의로 채택한 내용과 우리의 현 자연공원법에 있는 국립공원의 정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원천을 제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정제의코자 한다.

물론, IUCN의 정의는 근원을 미국의 낭만적 국립공원에 두고 있다(Jungius, 1985). 그러나 1969년 제정 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립공원의 정의이다. 논자는 정의가 국제조약에서 사용되는 서술방식에 의하여 기술되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관례를 존중하며 본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 가능한 원문에 충실하면서 세계적인 변화추세를 감안

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우리 국립공원의 현실적인 접목을 위하여 부분적이거나 설악산 국립공원을 그 예로 들었다.

## II. 본론

### 1) 국립공원의 목표 - 자연생태계 보존

IUCN의 국립공원에 관한 정의의 처음 문장은 다음과 같다:

A national park is a relatively large area where:

“one or several ecosystems are not materially altered by human exploitation and occupation, where plant and animal species, geomorphological sites and habitats are of special scientific, educative and recreative interest or which contains a natural landscape of a great beauty;

“국립공원이란 비교적 넓은 지역으로 하나 또는 여럿의 생태계가 인간의 이용(개발, 착취)과 점유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고, 동·식물의 종들, 지형학적인 장소, 서식지가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또는 휴양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나 매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을 말한다;

이 절은 국립공원의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보호개념의 목표를 밝혔다. 예전에 단순하게 주장되던 이상적인(고정된) 자연상태(예: 현재의 아름다운 경관)를 보호목표로 삼는 것은 역동적인 변화과정 자체를 생태계의 본질로 보는 현대 생태학적 관점과(Jungius, 1985; Bibelriether, 1985; Erz, 1985; Bratton, 1985; Scherzinger, 1990)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이미 첫 줄에서 “one or several ecosystems...”를 명기하여

초창기에 흔히 논의되던 고전적인 '고정된 경관의 유지'나 경관미(Bratton, 1985)는 더 이상 논리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에서는 국립공원 지정 당시의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해당생태계는 "not materially altered by human exploitation and occupation..."로 성격을 규정하여 보호(보전과 보존)에서 보존(Preservation)의 의미가 짙은데, 이미 1969년 제정당시에 회소해진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절박감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생태계는 없으며, 온실효과, 산성비 등의 범 지구적 환경 파괴로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하다(Erz, 1985; Remmert, 1988; Scherzinger, 1990). 이런 연유에서 '원초적 자연상태'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아직까지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었다. 결국 실제 보호 대상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의 손때가 묻은 인공적 경관이며 그곳이나마 개발을 방지하여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

우리의 자연공원법에는 생태계 보호개념이 자연공원법 전체의 목적으로 명기되어있다. 그러나 "...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자연공원법 1조-목적)로 우선 보호의 개념이 명백하게 보전(Conservation)으로 되어있다. 더구나 이런 목적조차도 세부조항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립공원은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자연공원법, 제2조-定義)로 규정하여 국제규정의 단지 일부만 수용하고 '생태계'란 단어가 없어 국제적 국립공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또, '수려한 자연풍경지'는 생태계 개념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자연생태계란 평범한 경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sup>. 또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항은 보호와 이용이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원지역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으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에 의하면 이용을 자연 소비적으로만 인식하고있다.

더구나 '공원폐지의 조항(자연공원법 제 9조, 시행령 제5조 7항)'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원의 회복이 극히 곤란한 경우"의 조항은 국립공원의 본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야 말로 의심할 바 없는 자연 생태계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령 5조에는 기간산업, 중요한 광업, 군사적 목적의 건설등의 예외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국립공원에서조차 자연생태계가 우선이 아님을 규정하고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경관이나 생태계의 상태는 인구밀도와 국토의 절대면적을 고려한다면 IUCN에서 규정하는 국립공원의 자격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비록 생태계가 원시상태는 아니나 그 가치는 결코 원시생태계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며 방법에 따라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Youn, 1993). 이 말은 국립공원의 기본조건인 자연생태계는 존재한다는 뜻이다.

관점을 돌려 IUCN의 정의를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키고 자연중심적 이상을 통하여 인간이 아닌 자연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은 다른 문화권과 저개발국가에서 국립공원의 실현이 어려운 원인중의 하나이다. 자연을 어떤 대상(object)으로 인식하는 서구에서는(Meyer-Abich, 1979; Eberle, 1980; Rolston, 1982, Youn, 1993) 자연에 관한 모든 생각, 즉 파괴, 보호 모두 자연을 대상화하는 작업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는 달리 다른 문화권에서는 자연을 대상화하는 작업이 개발과 파괴를 통하

1) 스위스 국립공원, 독일의 바이에리쉬발트 국립공원, 프랑스의 일부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수려한 경관이 아니며 평범한 경관이다.

여 현재 진행되는 중이며 의식변화는 요원한 실정이다(Youn, 1993; 윤, 1996).

“...교육적으로나 휴양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아주 아름다운 경관...”(국립공원의 정의 참조)이란 해당 사회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자연경관의 성격에는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Sakurai, 1984; Henke, 1990, Henderson, 1992). 왜냐하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예: 독일, 프랑스, 한국, 스위스, 일본 등)에서 경관변화는 자연현상에 의한 것은 드물고, 주로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에서 국립공원이란 본래 정의인 ‘인간의 영향이 없는 생태계’가 아닌 ‘문화적 경관’이다. 결국 실제관리를 위하여 경관변화의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며 아프리카처럼 인구밀도가 반드시 높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 작업은 중요하다 (Anderson and Grove, 1987). 왜냐하면 전통적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관리방식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생태계보전 자체도 어렵기 때문이다 (Mischra, 1982; Jefferies, 1982; Mascarenhas, 1983; Hill, 1983; Viner, 1984; Baines, 1984).

## 2) 국립공원을 위한 정책

IUCN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2) the highest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has taken steps to prevent or eliminate as soon as possible exploitation or occupation in the whole area and to enforce effectively the respect of ecological, geomorphological or aesthetic features which have led to its establishment; and ...

2) “국가의 담당 최고기관이 전 지역에서 가능한 조속하게 개발(착취)과 점유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국립공원)이 설립되

게 된 생태적, 지형적 그리고 미적 특성의 유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조치를 취한 곳이며...”

공원관리의 기본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2절은, 국립공원의 법적 지위와 정책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의 담당(소관) 최고기관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나타내며, ‘최고...’라는 말은 ‘독립된’ 기관임을 의미한다.

이 조항과 관련된 우리의 현실은 판이하다. 현재 국립공원은 내무부 소관이며 관리공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우선 공공기관이 아니며 당면한 자연보호의 난이도에 비하여 수행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리추구의 성격이 강한 법인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우리 국립공원의 실상을 표출하고 지방 자치체 실시와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비교: 김성일, 1995; 이상돈, 1995).

이용의 금지에 대한 언급에서 다시 한번 서구의 시각을 뚜렷이 보여준다. 자연의 이용을 “개발(착취)과 점유...”로 이해하는 관점과는 달리, 다른 문화권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즉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이용형태가 있다. 더구나 이것은 서구식 자연보호와는 달리 생활습관이나 종교적 영향을 받은 전통에서 형성되었다(Johannes, 1982; Permetta and Hill, 1984; Bains, 1984). 결국 서구의 대상(자연)보호 방법인 국립공원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수용이 어려우며 사회와의 마찰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Lusigi, 1984; Hough, 1988; Basnet, 1992; Youn, 1993; 윤, 1996).

전체적으로 두 번째 문항은 국립공원에서 ‘자연에 가까운 지역’에서 ‘대상보호’와 ‘생태계 보호’ 개념의 실제적인 면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역할은 지정된 지역의 자연 회복을 돕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은 명백하게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결국, 서구에서 국립공원이란 ‘보호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서구 문

화권 밖의 나라들에서도 '자연에 가까운 지역의 보호'는 국립공원의 목표이다. 그러나 문화적, 사회적 차이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다양한 방법 중에 '자연과의 조화'를 국립공원에서 행하려는 시도(Hough, 1988; Basnet, 1992)는 우리 문화와도 친숙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 조화는 전통적 이용일 수도 있겠고, 전통적 자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시에 서구의 '환경윤리 (environmental ethic)'와 연결이 가능한 어려운 의미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문화에 적합한 개념으로 서구의 환경윤리를 해석하여 사회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전통적 자연관이 중요한 인자이다 (Youn, 1993).

### 3) 국립공원의 이용방법

국립공원에 대한 IUCN(1969)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계속된다:

3) "...visitors are allowed to enter, under special conditions, for inspirational, educative, cultural and recreative purposes."

"...방문객들의 입장은 특별한 조건하에서 영감적인, 교육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휴양 목적으로 허용되는... (곳)"

이미 1절에 "휴양적..."이란 언급이 있으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에 취급한 것은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이며, 방문객의 출입을 "...특별한 조건하에서..."라는 단서를 붙여 자유스러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별한 조건이란 목표가 보존(Preservation)의 성격이 강하므로(주. 제 1절) "자연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뜻하며, 동시에 이용의 성격을 규정한다. 즉, 국립공원에서 이용이란 일

상적 이용(Utilization)이 아닌 보호를 통한 이용, 즉 보전(Conservation; protection for man)<sup>2)</sup>을 뜻한다.

이미 예를 들었지만 우리 법에서 제시하는 이용이란 개발(도로, 시설, 위락시설 등)을 통한 일상적 이용을 뜻하며 이런 경향은 관리공단의 케치프레이즈를 이용(Utilization)과 보전(Conservation)으로 만들어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를 수 있다.

또 "영감적, 교육적, 문화적 목적의" 이용을 휴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recreative"를 분리시킨 것은 자연 소비적(consumptive) 휴양과 비소비적 형태(non-consumptive)의 이용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국립공원에서 '이용'이란 '자연과 만남'이며 해당 사회의 형태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며 비소비적이거나 홍보 혹은 교육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이용형태가 날이갈수록 교육과 홍보, 특히 환경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며, 문화적 가능성은 'National park'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적 배경을 가지기 때문이다(Harmon, 1987; Youn, 1993; Youn 1996).

### 4) 국립공원과 현세대의 윤리적 책임

미국 국립공원의 기본 틀을 여전히 유지하는 IUCN의 정의는(Jungius, 1985) 전반적으로 윤리적 성격이 강하다. 또, 전세계적인 환경파괴는 마지막 남은 자연생태계를 초기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들었다. 이와는 달리 국립공원과 사회의 관계는 정치적이면서 사회-경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역시 사회에 유익하여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만 올바른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 때문에 공원정책의 주임무는 이용을 허락하되 이용을 통하여 자연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2) 패쓰모어는(Passmore, 1974) 보호(Protection)를 보전(Conservation; for man)과 보존(Preservation; from man)으로 분리하였다.

게 유도하는 것이다(ABN, 1985). 결국 이용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이용 형태에 대한 연구와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올바른 이용을 통하여 자연을 보존하자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불가피하다. 레몬(Lemons, 1987)은 이를 위하여 국립공원 경영에 자연소비적인 가치는 최소화하고 비소비적인 가치는 최대화할 것을 제안하여 경영에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자연공원의 생태계 유지에 무엇이 생태학적으로 적절한가를 고려하기보다는 대중이 자연으로부터 원하고 선호하는 것을 중시하고 거기에 대처한다. 이것은 '해야 한다는 의미의 (윤리적)정책'이라기보다는 수요위주의 정책이며... 다양한 가치들이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의 자원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생활양식들이 재평가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착오는 현세대가 가지는 공원자원의 '보존' 욕구를 위협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요구와 바람을 위협하여 윤리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세대간의 마찰을 파생시킨다(Lemons, 1987)"

IUCN 정의에 내포된 윤리적 성격은 우선 '인간의 영향이 없는 자연생태계'를 국립공원의 자연으로 규정된 점과 보호에 '국가 관련 최고기관'이 나서야함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용방법에서 "...영감적 (inspirational)..."을 가장 먼저 언급하여 현세대의 후손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파괴되거나 변화된 자연은 영감적(Inspirational) 이용형태를 강제로 변질 시키며, 이것은 현세대가 후손들의 기본권리를 무의식중에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이용은 보존의 성격을 띠어야한다는 의미이다.

#### IV.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국립공원은 목표가 자연보존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강력한 관리

주체가 요구되며 이용은 자연보호의 범주 내에서 허락되어 보전을 의미한다.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국제적으로도 IUCN의 II급 보호지구인 'National Park'으로 평가하고 있다(ABN, 1985).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본사항이 자연공원법에서 전적으로 무시되어 현존하는 모든 국립공원은 휴양과 이용위주의 경관보호지역에 해당하는 범주V(Category V-Protected Landscape or Seascape)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 국립공원에서 '생태계 보존'을 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괴한 일이며 정책 역시 보존위주로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현 상황의 개선에는 우선 국립공원의 개념을 현재의 '이용과 보전'에서 '보전과 보존'으로 변경하여 이용을 후손의 권리를 인정하는 '보전'으로, 또 자연생태계의 존재권리를 인정하는 '보존'이 목적임을 이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는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에서 독립시키는 작업이 필연적이고 관리 주체의 성격이 국제적 의미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바뀌어야한다. 그리고 자연보호의 어려움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국립공원의 국제적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뒤에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모습으로 보호(보존과 보전)를 추구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식 국립공원'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 인용문헌

1. 김성일, 1995,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전략.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175-226
2. 이상돈, 1995,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구의 제도적 및 법적구조. 『우리나라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국가전략개발』, 111-126
3. 윤영일, 1996, 국립공원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동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2): 52-61
4. Anderson, D. and Grove, R. (1987), *Conservation in Africa, people, policies and practi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5. ABN(Arbeitsgemeinschaft beruflicher und ehrenamtlicher Naturschutz). (1985). National-parke - Anforderungen, Aufgaben und Lösungen. Jb.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d. 33. Bonn.
6. Baines, G. (1984), "Environment and resources-managing the south pacific's future" *Ambio*. 13(5-6): 355-358
7. Basnet, K. (1992), "Conservation practices in Nepal: Past and present" *Ambio*. 21(6): 390-393
8. Bibelriether, H. (1985), "Zur Vereinbarkeit von nat rlichen Entwicklung und wirtschaftlichen Nutzung im Nationalparken, am Beispiel des Nationalparks Bayerischer Wald", In: ABN(Hrsg. 1985): 24-30
9. Bratton, S. P. 1985. "National park management and Values", *Environmental Ethics*, 7: 115-133
10. Eberle, M. (1980), *Individuum und Landschaft*. Zur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Landschaftsmalerlei. Gießen: Anbas.
11. Erz, W. (1985). "Nationalparke in Theorie und Parxis", In: ABN(Hrsg. 1985): 65-72
12. Gadgil, M. (1992), "Conserving biodiversity as if people matter: A case study from India", *Ambio*. 21(3): 158-165
13. Guha, R. (1989), "Radical american environmentalism and wilderness preservation: A third world critique", *Environmental Ethics*, 11: 71-83
14. Harmon, D. (1987), "Cultural diversity, human subsistence, and the National Park Ideal", *Environmental Ethics*, 9: 147-158
15. Harvey, B. and Knamiller, G.W. (1981),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 Global Dilemma", *Environmental Conservation*, 21(6): 391-399
16. Henderson, N. (1992), "Wilderness and Nature Conservation Ideal: Brita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ontrasted", *Ambio*, 21(6): 391-399
17. Henke, H. (1990), "Grundz ge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en des internationalen Naturschutzes", *Natur und Landschaft*, 65(3). Bundesforschungsanstalt für Naturschutz und Landschaftsökologie (Hrsg.). 106-112
18. Hill, M. (1983), "Kakadu National Park and the Aborigines: Partners in protection", *Ambio*. 12(3-4): 158-161
19. Hofer, D. (1987), *Naturschutz als Wertobjekt*. Eine exemplarische Studie über Einstellungen zu Schutzgebieten. Diss. Fosrwirt. Fak. Univ. München.
20. Hough, J.L. (1988), "Obstacles to effective management of conflicts between National Parks and surrounding human commun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15(20): 129-136
21. Jefferies, B. (1982), "Sagarmatha National Park: The Impact of Tourism in the Himalayas", *Ambio*, 11(5): 274-281
22. Johannes, R.E. (1982), "Traditional conservation methods and protected marines areas in oceania", *Ambio*, 11(5): 258-261
23. Jungius, H. (1985), Das Nationalparkkonzept heute und in Rahmen der internationalen Entwicklung. In: ABN (Hrsg. 1985): 9-17
24. Lemons, J. (1987), "United States' National Park Management: Values, policy and possible hints for others", *Environmental Conservation*, 14(4): 329-340
25. Mascarenhas, R. (1983), Ngorongoro. "A Challeng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mbio*, 12(3-4): 146-152
26. McNeeley, J.A. and Miller, K.R. (ed.) (1984), *National Park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he role of protected areas in sustaining society. Proceedings of the world congress on National Parks: Bali, Indonesia, 11-22 October 1982.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 Pr.
27. Meyer-Abich, K.M. (1979), "Toward a practical Philosophy of Nature", *Environmental Ethics*, 1: 293-308
28. Mishra, H., (1982), Balancing human needs and conservation in nepal's Royal Chitwan Park, *Ambio*, 11(5): 246-251
29. Ovington, J. D. (1984), Ecological Processes and National park management. In: McNeely and Miller(ed.)(1984): 60-64
30. Passmore, J. (1974), *Man's reponsibility for nature*. Ecological problems and western traditions. London, Duckworth.
31. Pernetta, J. and Hill, L. (1984), "Traditional use and conservation of resources in the pacific basin", *Ambio*, 13(5-6): 359-364
32. Ranjitsinh, M.K. (1984), The indomalayan realm. In: McNeely and Miller(ed.)(1984): 148-153
33. Remmert, H. (1988), *Naturschutz*. Berlin-Heidelberg: Springer.
34. Sakurai, M. (1984), Adjustment between nature and human activity in National Parks in Japan. In: McNeely and Miller(ed.)(1984): 205-210
35. Scherzinger, W. (1990), "Das Dynamik-Konzept im fl chenhaften Naturschutz: Zieldiskussion am Beispiel der Nationalpark-Idee", *Natur und Landschaft*, 65(6): Bundesforschungsanstalt für Naturschutz und Landschaftsökologie(Hrsg.): 292-298
36. Rolston, H. (1982), "Are Values in Nature

- subjective or objective?", *Environmental Ethics*, 4: 124-151
37. Viner, A.B. (1984). "Environmental protection in Papua New Guinea", *Ambio*, 13(5-6): 342-344
38. Youn, Y.I. (1993). *Nationalaprk - Idee und Praxis*. Versuch der Entwicklung einer tragfähigen Nationalpark-Alternative für die Republik Korea unter Beachtung insbesondere kulturelle Einflüsse. Diss. Forstw. Fak. Uni. Freiburg.